서효인의 '소설처럼'

우리는 모두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어

-은모든 '모두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해'

은모든 작가의 신작 장편소설 '모두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해'를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까. 우리가 아는 소설이라는 장르의 특성에 이 이야기가 얼마나 들어맞는지 말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소설의 관습을 배반했다고 보기에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소설의 얼개를 유지하는 거대한 사건은 별반 일어나지 않고, 주인공인 경진 또한 운명적 사연이나 영웅적 의지는커녕 그저 소시민에 불과하다. 그것도 과외교사로 열심히 일하다 겨우 사흘의 짬을 내 휴가를 갖는 사람, 그러니까 엄청나고 대단한 사건에 휘말릴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비범한 인물을 만나면 소설적 결기나 드라마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경진의 주위 사람들은 경진보다 더 평범한 일상을 산다. 결혼 준비를 하고, 육아를 하고, 홀로 노년을 견딘다. 노견을 기르고, 딸아이 진로를 고민하고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한다.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들 모두가 사흘간의 달콤한 휴가를 만끽해야 할 경진에게 말을 건넨다. 그저 말을 건네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한다.

여기서 그들의 소통 창구가 '말'이 아닌 '이야기'임은 매우 중요하다. 말은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수단이다. 자신 앞에 도드라진 현상을 표현하거나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말을 한다. 비키세요. 도와주세요. 물 좀 주세요. 이거 얼마예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등등. 그렇지만 이야기는 다르다. 이야기는 현상 너머의 이면을 전시한다. 이야기는 내 앞의 문제를 무엇 하나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생겨나고, 들려온다.

이야기에는 이야기 속 인물의 삶이 있다. 소설이 되기 전 이야기의 주인공은 대부분 나 자신이다. 우리는 나 자신을 표현할 수단으로 이야기를 오래도록 택해 왔다. 나를 이야기한다. 너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는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닌, 대화의 기본 전략이 된다. 그 이야기에 적절한 플롯과 단정한 문장이 더해지면 소설이 된다. 그 이야기가 배우의 연기에 의해 수행되면 영화나 연극이 되고, 길게 이어지면 드라마가 된다.

그것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이야기다. 그러나 플롯이 없다고 하여, 그저 개인적 체험이나 사연이라고 하여 그게 이야기가 아닌 것은 아니다. '모두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해'는 그 사실을 잘 안다. 인물들의 이야기는 소설은 될 수 없겠지만, 분명히 이야기다. 소설은 이야기다. 그 이야기를 모아 소설이라고 하지 않을 이유 또한 없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 플롯의 선택은 그리하여 과감하다. 이야기와 이야기를 연결하는 이야기. 그 연결에 '듣기'가 있다. 주인공 '경진'은 그리하여 듣는 사람이 된다. 각기 따로 노는 것 같은 이야기는 책의 추천사에 나오는 말마따나 오목한 도자기 같은 경진의 속에 차분히 안착한다. 지나친 호의나 냉정한 돌아섬 없이 경진은 그들의 말을 듣는다. 경진 덕에 소설의 독자들은 여럿의 이야기를 이어 듣는 호사를 누린다. 그 이야기에는 그들의 삶이 있다. 놀랍게도 각기의 삶을 살아 내어, 기어코 만들어진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고, 듣는 행위는 우리를 공생의 관계로 만들 수 있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서로를 이해함으로써, 서로를 지켜 낼 수 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위무할 수도 있다.

소설의 마지막 이야기는 그렇게 각자의 이야기를 살아왔던 우리 모두를 위로하는 이야기이자, 이야기의 주인공을 위로해야 마땅한 이야기이다. 사우나에서 만난 세신사 아주머니의 사연을 듣는 경진. 장소가 장소인지라 서로 더 꾸밀 것 하나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이야기의 보호를 받는다. 누구나 비극적 사고를 겪을 수 있고, 재난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별의별 이야기를 수집하는 데 열중인 듯싶었던 이 소설은 끝내, 이야기의 주인이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까지 다다른다. 그것은 피해자의 이야기다. 이야기로 연결됨은 곧 이야기로 연대함이다. 이야기의 위대한 힘이 아닐 수 없다.

의료칼럼

손목 터널 증후군

김선종
나주동신대한방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우리는 매일 손목을 쉴 새 없이 사용한다. 컴퓨터 업무부터 스마트폰 사용까지 각종 활동에 손목은 점점 지쳐가며 심지어 통증 및 저림까지 호소하게 된다. 무리한 손목 사용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을 통과하는 신경인 정중신경의 압박으로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의 손가락 및 손바닥의 저림, 이상 감각, 감각 저하, 통증이 대표적인 증상인 신경 압박성 질환이다.

손가락과 손바닥에 저리거나 작열감, 찌르는 느낌, 조이는 느낌, 무감각을 느끼게 된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5배 정도 많으며 30~60세 사이에 주로 나타난다. 반복적으로 손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빈발하며 당뇨병, 갑상선 기능 저하증, 류마티스 관절염 등이 영향을 주기도 한다.

증상은 특히 야간에 더욱 심한데, 이는 수면 중에 손목이 굴곡 방향으로 꺾이기 쉽고 아픈 쪽으로 누웠을 때 압박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이다. 손목 터널 증후군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엄지 주변 근육이 위축되거나 약화될 수도 있다. 근위축이 온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손목 터널 증후군를 비증(痺證)으로 분류하고 있다. 비증은 풍한습열(風寒濕熱)의 사기가 근육, 뼈, 관절의 경락 흐름을 막아 통증과 움직임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막힌 기혈(氣血)의 움직임을 원활하게끔 풀어 주고 사기가 다시 침범하지 못하게 강화시켜 주는 치료를 할 수 있다.

6주에서 3개월 가량의 한방 보존적인 치료에 회복이 잘 되는 편이며, 손목이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보조기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진단된 경우에는 손목의 과도한 사용을 줄이고, 자세 교정과 손목 주변의 인대를 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은 경추 디스크, 흉곽출구 증후군, 주근관 증후군, 척골신경 마비와 비슷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한방 치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손목 관절의 기혈이 잘 순환될 수 있도록 침 치료와 뜸 치료를 병행해 경락의 불균형을 조절한다. 침 치료 시에는 열결(列缺), 합곡(合谷), 내관(內關) 및 심포경(心胞經)의 혈자리와 통증 및 저림이 있는 부위의 혈자리를 많이 사용한다.

뜸 치료는 관절 부위의 온열 자극을 통해 응체돼 있는 기를 순환할 수 있게 돕는 작용을 한다.

또 봉약침 요법은 소염 진통, 혈액 순환 촉진, 항균, 면역 조절 작용 등의 효과가 있어 근골격계 질환에 우수한 효과가 있으며 손목 터널 증후군에도 유효한 효과가 있음이 여러 논문에 보고돼 있다. 또한 진통, 소염 및 진경 작용 등의 효과가 있는 오공약침을 통해 손목 관절의 통증 및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더불어 사기로 막혀 있는 관절, 근육, 뼈의 흐름을 소통시킬 수 있는 약재를 사용해 통증과 증상을 경감시켜 준다. 작약감초탕, 계지복령환 등 다양한 처방들이 효과가 있음이 논문에서 보고된 바 있으며 환자의 체질·증상에 따라 다양한 한약 처방을 고려할 수 있다.

추나 요법도 효과가 좋다. 한의사가 손목 주변의 근육, 인대, 관절, 뼈와 같은 구조물의 변위를 파악해 진단한 뒤 뭉친 근육을 풀어 주고 이완시켜 주어 통증을 완화시키고 이완 강화 운동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무엇보다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손목의 무리한 사용을 줄여야 한다. 컴퓨터 사용 시에 키보드나 마우스 받침대를 사용해 손목의 꺾임을 방지해야 한다. 작업 중에도 자주 손목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위아래로 스트레칭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증상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일과 중, 수면 중에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도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근위축 소견이 보이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수술 후 한방 치료는 수술 후 붓기 및 열감을 경감시키며, 어혈과 염증을 풀기 위한 한약 치료 및 침 치료를 할 수 있다. 운동 치료를 통해 굳은 관절의 움직임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

기 고

천 개의 약속, 단 하나의 약속

박용수
동신고 교사

혹여 지키지 못한 약속은 없었는가. 너무 가볍게 여겨서, 너무 미워서 흘려버리거나 놓쳐 버린 약속은 없을까. 혼자 중얼거리며 걷다 보니 40년 전 기억 속으로 들어갔다.

전남 도청에 있고 망월동에도 있으며, 충장로 금남로 곳곳에 함성으로 바람으로 그리고 숨결로 그 약속이 남아 있다. 그리고 '5·18 40주년 기념 공연, 2020년 애꾸눈 광대의 '그날의 약속'' 공연장에도 오월 광주가 힘차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연극은 아들을 지켜야 했던 어머니와 도청으로 달려간 고등학생 이야기 그리고 조금은 잊힌 도청 지하실 다이너마이트를 사이에 둔 무기 회수파와 결사 항쟁파의 이야기를 통해 40년 전의 희미해진 약속들을 생생한 목소리로, 유쾌하게 때론 엄중하게 들려준다.

남편을 잃고 아들까지 잃을 순 없다는 종팔의 어머니는 도청을 향해 가는 아들을 지키겠다고 약속한다. 고등학생이었던 박종팔은 계엄군의 잔혹한 총탄에 쓰러진 친구에게 끝까지 싸우겠다고 약속한다. 두 사람의 약속은 어쩌면 지킴과 뺏음, 선과 악 그 어떤 것도 생명보다 소중할 수 없다는 절규이다.

그리고 전도사 문운동 역시 꼭 살아서 데이트하자고 약혼녀 나일순과 약속을 하고 도청으로 향한다. 안타깝게도 그날 약혼녀가 채워준 손목시계는 그날 5월 27일 계엄군의 총탄에 그의 심장이 뚫고 지나가면서 멈춘다.

어머니의 약속, 박종팔의 약속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약속이라기보다 절대 악과 만났을 때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준 약속인지 모른다. 지키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전도사가 약혼녀에게 한 약속은 둘의 사랑보다 더 큰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깜깜한 새벽, 독재 정권에 세뇌된 계엄군들이 탱크를 몰고 도청으로 진입하는 순간 그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굳게 다짐을 한다. 어머니와 아들의 약속, 약혼녀와 전도사가 다짐한 약속 아니 광주시민과 민주화를 열망하는 대한민국 민중들의 각기 하나의 약속에서 확장된 천 개, 만 개 다짐한 약속은 "여기서 싸우다 죽으면 혼백으로라도 꼭 돌아와 만나자. 더는 독재와 억압이 없는 자유로운 민주주의 세상에서 만나서 서로 함께 살자"라는 한 명 한 명의 약속이 우리 모두의 약속으로 승화된다.

반면에 권력욕에 가득 찬 전두환과 세뇌된 계엄군의 "항복하면 용서 하겠다"라는 거짓 약속, 비열한 거짓은 더없이 추하고 깃털보다 가볍다.

그래서 '그날의 약속'은 과거형이라기보다 진행형이고 우리 앞에 무겁게 놓여 있는 미래형이다. 너무 사랑해서 죽어도 지켜야만 할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약속, 진짜 약속이다.

현장감 넘치는 음향과 배우들의 열정적 숨소리,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과 함께 우리는 잠시나마 오늘을 잊고 그날 5월로 돌아가며, 또 나를 잊고 모두가 되는 공연.

당시 도청에서 최후까지 싸운 고 김영철 시민군의 따님이 직접 출연하여 절절한 안무로 도청에서 쓰러진 영혼들을 부활시키는 부분, 약속이 지켜지는 정점에서 당신도 폭풍 눈물을 만날 것이다.

아직도 5·18 기록관에는 그때 멈춘 문용동 씨의 시계가 멈춰 있다. 그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도록 바라는 염원으로 문 앞을 나서길 바란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인지 모른다. 5·18이 더는 잊히지 않고 기억되기를. 더 왜곡되지 않고 자랑스럽게 울려 퍼지길 바라는 것이 우리의 약속이고 5·18을 연극으로 부활시키고자 몸부림치는 애꾸눈 광대 이세상 씨의 약속일 것이다.

연극 '그날의 약속'은 만석을 이룬 가운데 막을 올렸다. 이날 공연에는 80년 당시 항쟁 지휘부와 공수부대 출신 최영신 씨가 만나 용서와 화해의 시간을 마련하여 관객들에게 벅찬 감동을 선물하며 4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날의 약속'은 광주 아트홀에서 6월부터 9월까지 매월 넷째 주 화,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공연하며 순회 공연을 통해서도 5월 정신을 알릴 예정이다.

누구나 살다 보면 지키지 못하고 지나쳐 버린 약속들이 있다.

하지만 이번엔 단단히 다짐하고 5월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서 공연장으로 향할 것, 단단히 울고 웃을 준비를 할 것, 5월은 치열한 싸움이고 뜨거운 사랑이기에 주저하지 말 것. 절대 실망하지 않을 것이니 힘차게 희망을 읽을 자세를 갖추고 나설 것.

社 說

공공기관 추가 이전 '차등 배분' 절실하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제1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후에도 정부 공공기관 중 70%가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그제 국회도서관에서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혁신도시 정책이 추진됐음에도 공공기관의 중부권 쏠림과 권역별 불균형 분포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오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 공공기관 362개 중 수도권에 157개, 충청권에 84개가 남아 있다. 강원 13개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70.2%인 254개가 중부권에 쏠려 있는 것이다. 반면 남부권인 호남에는 29개(8%), 영남에는 74개(20.4%)가 있을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1차 이전 때와는 달리 충청권에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이를 고려하면 추가 이전 과정에서 남부권에 비해 접근성이 좋은 충청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차 이전 대상은 1차 이전 이후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으로 한정할 경우 최대 80개 정도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이기원 한림대 교수는 "이 정도 규모로는 정책 효과가 미미하므로 한국은행·금융감독원·농협·산업은행 등도 이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민주당이 지난 총선 공약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내걸면서 최근 비수도권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것처럼 기존의 권역별 총량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균등 배분하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전 기관 배치 과정에서 공공기관 수와 균형 발전 지표 등을 활용해 지역별로 차등 배분함으로써 낙후된 호남을 최대한 배려해야 할 것이다.

소방관 트라우마 치료 획기적 대책 마련을

광주·전남 지역 소방관들이 인명 구조·진화 과정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겪은 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광주에서 근무하는 30대 A소방관이 지난 15일 근무지 물품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한 달 전 가족에게 '우울하고 힘들다'고 말한 점 등으로 미뤄 업무상 스트레스와 연관이 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전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에서 PTSD(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증상으로 의심되는 소방관은 지난해 모두 201명(광주 62명·전남 139명)이었는데,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광주 지역의 경우 2017년(30명)에 비해 2018년(64명)과 2019년(62명)엔 배 이상 늘었으며, 전남도의 경우도 2017년 66명에서 2019년엔 139명으로 급증했다. 심지어 이 지역에서 최근 5년 동안 정신적 고통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공무원도 4명이나 된다.

광주시와 전남도 소방안전본부는 소방관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이들의 육체·정신적 고통을 덜어줄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소방공무원을 위한 트라우마 및 정신적 장애 치료 프로그램이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도 소방본부는 이들이 겪는 정신·육체적 고통이 격무에 따른 근무 체계와 무관할 수 없는 만큼 세심히 살펴 인력 보강 등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도 소방안전본부는 시·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안위를 돌볼 겨를이 없는 소방관들을 지켜 주어야 한다.

소방관이 위험해지면 결국 시·도민의 안전도 위협받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無等鼓

전일빌딩 활용법

한 달 전쯤 이곳을 처음 찾았을 때는 오래된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피곤할 때면 잠시 눈을 붙이던 신문사 조사실의 구석진 자리, 기사 아저씨들과 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렸던 주차장, 전시가 열리곤 했던 3층 남봉갤러리, 호남예술제 취재를 위해 자주 들렀던 8층 강당 등. 리모델링으로 옛 모습은 많이 사라졌지만 오랜 시간을 건너 '거짓말처럼' 나를 그때 그 장소로 데려갔다. 무엇보다 거의 변하지 않은 계단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다. 수습기자와 초년 기자 시절,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나 선배들에게 야단을 맞을 때면, 어김없이 그곳에 앉아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곤 했던 바로 그 계단.

과거 광주일보가 자리했던 전일빌딩은 이제 '전일빌딩 245'가 됐다. 5·18 당시 헬기 사격으로 빌딩 외벽에 생긴 245개의 탄환을 기억하는 의미를 담은 새로운 이름이다. 그리고 5·18을 기억하는 공간 및 시민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변신했다. '금남로 1가 1번지'라는 상징적 장소가 이제 '시민 모두의 공간'이 됐다는 건 무엇보다 의미가 있는 일일 터이다.

4년 된 어느 소규모 인문학 모임이 오는 7월부터는 전일빌딩 245에서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오페라와 미술사로 살펴보는 세계사'라는 근사한 프로그램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저렴한 비용으로 장비를 활용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게 돼 기대가 많다고 했다.

어제 점심 식사 후 들른 8층 '카페 245'엔 할아버지부터 20대 청년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무등산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와, 이곳이 이렇게 변했군요." 동행한 이는 깜짝 놀라는 모습이었다. 그는 카페 밖 굴뚝정원과 무등산이 바라다 보이는 10층 전일마루까지 둘러보더니 "얼른 이곳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며 웃음을 지어 보였다.

아무리 잘 꾸며 놓은 공간이라도 이용자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 한데 전일빌딩 245는 벌써 광주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은 듯해 흐뭇했다. 옛 전일빌딩이 나에게 그러하듯, '전일빌딩 245' 또한 누군가에게는 언젠가 새로운 추억과 기억이 차곡차곡 쌓이는 공간이 되리라.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42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